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 연구: 낙태 사례를 중심으로*

최진일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연구조교수

들어가는 말

1. 태아의 지위와 그 유린

1.1. 인간의 생명은 근본적인 가치

1.2. 태아의 지위와 그 유린

1.3. 소결

2. 도덕불감증과 낙태

2.1. 도덕불감증의 원인

2.2. 도덕불감증 분석

3. 자연법에 근거한 생명존중

3.1. 자연법

3.2. 자유

3.3. 생명존중과 인간다움의 윤리

나가는 말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강엘리사벳 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들어가는 말

‘생명경시’란 ‘생명’과 ‘경시’라는 말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생명은 넓게 지구 상 모든 생명을 지칭할 수 있고 좁게는 인간 생명을 말한다. 경시(輕視)란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을 뜻한다. 그러므로 생명경시란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이다. 생명의 광의적·협의적 의미에 따라, 생명경시 또한 광의적·협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적 생명경시는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적 생명경시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로서 자살, 낙태, 학대, 고문, 각종 폭력, 노동착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에 초점을 두고 그 한 사례로서 낙태를 살펴볼 것인데, 이를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김수환 추기경은 환경오염, 산업재해, 전쟁, 기아, 질병,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이 땅에서 제일 큰 생명의 위협은 바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의 양심의 가책 없이 자행되는 낙태”라고 꼽는다.¹⁾ 그는 이를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전도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면서 갖가지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례로 보고 있다.²⁾

잘 알려져 있듯이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주요한 관심을 인간에 두고, 우리 사회에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권수호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윤리를 벗어나면 짐승이다. 짐승 중에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짐승이다.”³⁾ 그에게 윤리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존재 방식이며, “윤리의 바탕은 무릇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다.”⁴⁾ 그의 관점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간과하면서 인간다운 존재방식을 추구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윤리관은 우리사회문제에 대한 통찰과 인권운동에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한

1) 김수환, 「생명운동」, 『김수환추기경전집』 4-1,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1), 56. 김수환 추기경 전집은 총 18권으로 구성되었다. 1-17권까지 김수환추기경의 어록(1965~2000)을 담고 있고, 이를 18권에서 연대순 혹은 제목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본 연구는 그의 전집을 중심으로 분석되지만 특별히 연대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많은 양의 글이 조사되었기에, 이하에서는 인용의 경우 김수환, 「글의 제목」, 『김수환추기경전집』의 권-part, 수, 형식으로 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포함한 상세한 표기는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김수환, 「생명을 선택하라」, 16-2, 120.

3) 김수환, 「탈(脫) 생명의 시대」, 4-1, 8.

4) Ibid. 여기서 모든 생명은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말한다.

그의 관점도 인권수호와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가정아래, “낙태”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생명존중사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태아의 지위와 그 유린에 대해 살펴보고, 생명경시의 원인으로 주목하는 도덕불감증에 대한 그의 관점을 분석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가 강조하는 자연법에 근거한 생명존중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김수환추기경전집』(2001)에서 직접적으로 ‘낙태’를 언급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그런 다음 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1. 태아의 지위와 그 유린

1.1. 인간의 생명은 근본적인 가치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수환 추기경은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전도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면서 갖가지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한 사례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인구 조절의 명목으로 거의 양심의 가책 없이 태아에게 자행되는 낙태를 가장 큰 생명의 위협으로 꼽는다. 즉 그의 관점에서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서 보호되지도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는 태아를 비롯한 인간 생명을 근본적인 가치로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가치관의 전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세기 하반기 낙태의 법적 자유화의 거센 물결에 가톨릭교회는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와 함께 태아의 인간학적 지위를 단호한 어조로 공표한다. 먼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51항은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사해는 흉악한 죄악이다”라고 천명한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생명의 권리는 인간의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는데,⁵⁾ 이는 1974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반포한 「인공유산에 관한 선언」(1974.11.18.) 11항에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첫째 권리

5) 김수환, 「생명운동」, 4-1, 57.

는 생명의 권리이다. ...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생명의 권리는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선행하는 것이다.”⁶⁾

김수환 추기경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재임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회칙 <생명의 복음>(1995) 60항에서 위 선언의 12-13항을 직접인용하고 교회는 육체적이며 영적인 단일성과 전체성을 지닌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마땅히 주어져야 할 무조건적인 존중이 존재의 첫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제나 가르쳐왔으며,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고 밝힌다. 인간은 수정된 순간부터 인격체로서 그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불가침적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⁷⁾

1.2. 태아의 지위와 그 유린

1.2.1.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그 유린

김수환 추기경은 가톨릭교회 가르침의 맥락에서 태아는 분명하게 인간 생명이라고 선언한다.⁹⁾ 그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가정공동체> 30항, 즉 “교회는 인간 생명이 어

6) 이 문헌은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조건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태아의 지위를 설명한다. 인간 생명은 근본 가치인데, 그 이유는 육체적 생명 위에 인간의 다른 모든 가치들이 기초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9항)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의 권리이다. ...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생명의 권리는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선행하는 것이다.(11항) 생명의 여러 단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생명권은 몹시 허약한 노인도 완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불치병 환자도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이 생명권은 방금 태어난 유아에게도 성인 못지않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간 생명의 존중은 수정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만일 그가 그 때부터 인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12항) 현대 유전학은 이 불변의 증거에 대한 귀중한 확증을 제공해준다. 즉 첫 순간부터, 이 생명체가 자라서 이미 잘 결정된 특징을 지닌 한 사람-개인이 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수정 때부터 한 인간 생명의 모험이 시작되고, 그의 위대한 능력이 각각 수립되어 활동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13항)

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60항. 김수환 추기경은 본 논문에서도 언급되듯이 요한 바오로 2세의 문헌을 종종 인용하면서 인간 생명의 존중과 그에 반하는 사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개진한다.

8)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태는 살인행위임을 강조하면서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한다. Vatican News, “Pope: Abortion is murder, the Church must be close and compassionate, not political”, 2021.9.16., <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21-09/pope-abortion-is-murder-the-church-must-be-compassionate.html> (2023.1.13)

9) 김수환,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5-2, 115.

떠난 조건과 발전 단계에 놓여있든지, 명백하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 생명을 촉진하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지를 모든 이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사명”임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오늘의 사도직의 본질”이 있다고 표명한다.¹⁰⁾ 인종이나 지위 상태 등과 상관없이 인간은 존엄하고, “고귀한 생명의 존중은 바로 그 생명이 잉태〔受精〕된 순간부터”라는 것이다.¹¹⁾

한편 인간 생명의 존엄과 인간 존엄을 말할 때, 무엇이 존엄한 것일까? 김수환 추기경은 어떤 이들은 인간존엄의 근거를 지성에 둔다고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성의 능력을 잃은 사람들은 존엄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더욱이 존엄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만인 평등은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¹²⁾ 그는, 인간 존엄성은 인간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며,¹³⁾ 그 존엄은 “모든 인간이 이미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것, 곧 하늘이 주신 것”으로,¹⁴⁾ 인간 생명의 기원에서 그 존엄의 근거를 발견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존엄성이 천부적이라는 사실은 그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기준이나 잣대로 가름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존엄을 전제하지 않은 인간 존엄은 모순과 오류에 빠져 인간을 유린하고 인간 그 자체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풍조를 자아낸다. 이러한 사태에서 생존권은 기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권리는 낙태 등을 비롯하여 무죄한 자에 대한 유린 행위로 말미암아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특히 “무죄한 태아에 대한 낙태 행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¹⁶⁾ 김수환 추기경은 인권침해 가운데 가장

10) 김수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4-1, 60.

11) 김수환, 「죽음의 문화」, 4-1, 50.

12) 김수환, 「종교와 인생」, 4-2, 162.

13) 김수환, 「집단적 양심 진단」, 4-9, 493.

14) “우리나라 헌법 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존엄성은 누구도, 어떤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의 격차, 또는 기타 어떤 인위적·사회적 차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는 이런 신성불가침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존엄성이 있게 하였습니까? 헌법입니까? 아닙니다. 헌법은 이미 있는 인간 존엄성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인간 존엄성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인간 존엄성은 천부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미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것, 곧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김수환, 「인간 존엄성의 근거」, 4-1, 75.

15) 김수환, 「인권과 교회의 역할」, 4-1, 7.

16) 김수환, 「회생 동반한 나눔-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12-6, 460.

큰 인권침해는 바로 낙태라고 주장한다.¹⁷⁾

1.2.2. 약자로서의 지위와 그 유린

김수환 추기경은 태아를 인간이면서 동시에 약자로 본다. 곧 “태아도 엄연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힘이 없고 말도 못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생명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인구 억제에 위해 죽여도 괜찮다는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연장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¹⁸⁾ 그가 말하는 결과란 생명을 경시하는 특히 약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서, 이는 사회적 인식과 풍조 뿐 아니라 모자 보건법·형법 등을 통해 “저능아, 병약자를 멸시하고 이들을 제거해야 옳다고 법으로 제정”하여¹⁹⁾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을 짓밟는 비민주주적 사태를 말한다.

그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장애자, 불치병자, 노약자 등과 함께 태아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약자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인간에 대한 가치관 결핍으로 자신의 자식(태아) 뿐 아니라 자기 이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우리사회에 필요하다고 본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인간을 생산가치가 없다고 처치하는 행위”가²⁰⁾ 사회에 그대로 통용될 때, 그 다음 단계는 경제성이 없고 비생산적인 무력한 인간, 병들고 노쇠한 인간을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²¹⁾

1.3. 소결

김수환 추기경은 태아에 대한 기본권 유린을 크게 그리스도교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판하면서 동시에 통합한다. 즉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인간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독이다.²²⁾ 낙태는

17) 김수환, 「교회에 현실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5-5, 287-288.

18) 김수환, 「격동의 바티칸 78년」, 15-1, 166.

19) 김수환, 「밝은 사회와 크리스찬」, 6-7, 340.

20) 김수환, 「밝은 사회와 크리스찬」, 6-7, 340.

21) 김수환,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5-2, 115.

22) 김수환, 「인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9-5, 326.

고문, 학대, 강간, 약탈, 인신매매 등 일체의 인명 경시와 기본권 유린으로 인간을 거스를 뿐 아니라 그 인간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라는 것이다.²³⁾

동시에 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가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인권유린의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는 다음의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같은 한국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주일날 성당 다닌다든가 그런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²⁴⁾ 그래서 인지 그는 약자의 문제를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논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간에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태아가 다른 약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인명경시가 어떤 사회를 이끌고 있는지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의 이러한 접근은 그 해결책에서 있어서도 교회와 사회(국가)는 반생명적 형태에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2. 도덕불감증과 낙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경시와 기본권의 유린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우선적으로 태아의 인간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의 천부적 존엄마저 부인한 탓이요, 태아를 비생산가치의 대상으로 환원하여 그의 기본권을 유린하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만 자행되는 문제가 아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가 체험하는 비인간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생명경시풍조”이며, 이는 “우리가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자체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²⁵⁾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을 도덕불감증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이 도덕불감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23) 김수환, 「절망 속에 계시는 하느님」, 1-3, 235, 「사순절의 의미」, 3-2, 101.

24) 김수환, 「생명 우리의 평화」, 15-4, 652.

25) 김수환, 「앓과 사랑」, 4-1, 17.

2.1. 도덕불감증의 원인

2.1.1. 낙태를 통한 인구정책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생명의 위협으로 낙태를 꼽았다. 1960년대 출산 붐과 의·학기술 보급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민간에서부터 산아제한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까지 지속된다. 한국 천주교회는 1960년대 이래 줄곧 진행되어온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에 강하게 반대했다.²⁶⁾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를 정책수립자들의 물질 중심적 사고에서 찾는다. 즉 국가의 정책 수립자들이 그들의 입지에서 수학적으로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이 국민총생산량의 양적 배당률이 높아지므로 낙태를 통한 인구 조절이 물질적으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고하는 데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다.²⁷⁾ 물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추구, 안이하고 안락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 인구 조절은 필요하고, 낙태가 이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성과 인간 생명이 얼마나 경시되고 있는지를 잘 증명해 주며²⁸⁾ 물질위주의 현대인에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²⁹⁾

2.1.2. 낙태 합법화

김수환 추기경은 1970년 성안(成案)된 모자보건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면서 입법저지에 힘을 쏟는다. 그가 모자보건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는 이유는 “이름은 모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모자보건법이지만 사실은 낙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⁰⁾ 이는 “태중의 아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저항력도 없다고 해서 마구 살해해도 살인죄가 아니라는 무감각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가 자식을 죽여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³¹⁾ 이는 “그 부모나 사회가 원치 않을 때 살해

26)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주교회의의 대(對)사회 문헌(1948-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52.

27) 김수환, 「낙태는 살인 행위」, 15-1, 14.

28) 김수환, 「생명의 빛 메시아」, 1-5, 444.

29) 김수환,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5-2, 116.

30) 김수환, 「낙태는 살인행위」, 15-1, 13.

31) Ibid.

해도 좋다”는³²⁾ 사고를 확산시켜, “이런 참혹한 일을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더구나 법까지 권장하는 가운데 [태아는] 죽어간다.”는 것이다.³³⁾

그의 낙태 합법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1990년대 초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를 일부 합법화하려는 시도에서도 볼 수 있다.³⁴⁾ 또한 낙태 합법화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다고 죽여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진정 인간을 위한 진보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³⁵⁾ 즉 그러한 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2.1.3. 물질·황금만능주의

우리 사회는 지난 세기 물질적 빈곤을 퇴치하고자 경제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이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도덕적 가치상실이 매우 크다.³⁶⁾ 경제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원시적 자본주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고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와 위화감은 심화되고 공동체의식은 붕괴된 상황에 놓여 양심은 마비되고 도덕을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 나머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커가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한 억압, 낙태의 자유화 등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문제 등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³⁷⁾ 특히,

아무런 죄도 없고, 저항력도 없는 태아,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그 귀한 어린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락, 물질적 행복,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온갖 반인륜적 범죄, 인간 생명 경시의 풍조가 지금 극에 달해 왔습니다. 가장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어머니들이, 또 생명은 잉태(受精)된 순간부터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서약한 의사들 상당수가 그 생명을 예사롭게 죽이는 사회에서, 그것을 또 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정치사회 풍토 속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온갖 반인륜적, 반(反) 생명적 범죄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³⁸⁾

32) 김수환,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5-2, 115.

33) 김수환, 「밝은 사회와 크리스찬」, 6-7, 340.

34) 김수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4-1, 60-61.

35) 김수환, 「격동의 바티칸 78년」, 15-1, 166.

36) 김수환, 「신학국 창조」, 13-2, 158.

37) 김수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4-1, 60.

38) 김수환, 「생명운동」, 4-1, 56-57.

이로 인해 우리는 정신적 황폐와 더불어 온갖 사회적 갈등, 충돌로 신음하고 있다.³⁹⁾ 인간보다 물질을 우위에 놓는 가치관의 전도 즉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는 사회와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⁴⁰⁾ 비인간화에서 오는 고독감, 허무감이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⁴¹⁾

2.1.4.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균열과 이중적인 잣대

그는 낙태를 끔찍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옛말로 능지처참이나 다름 바 없습니다.”라고 표현한다.⁴²⁾ 그는 낙태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사고를 지적하는데, 낙태가 연간 100만이 넘는 태아에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 앞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마음이 마비되어 무감각하기 때문이다.⁴³⁾ 특히 낙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에는 모두 충격과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수없이 죽임에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⁴⁴⁾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곧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물며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인명 경시 사상이 싹트게 되고, 그런 사회 풍토가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뱃속의 태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부모가 무섭다’라고 말하리라 생각됩니다.”⁴⁵⁾

현대인들이 모든 살인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태아가 살해되고 있는데, 이 수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유대인 수를 훨씬 넘는다. 그러나 나치의 만행에는 온 세계가 분노하지만 이 어린 생명의 학살에 세계는

39) 김수환,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 2-6, 328.

40)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사회 각계각층과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비인간화되어, 인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가진 자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 민주주의가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는 곧 인간화이고, 인간화는 참된 사랑으로써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참으로 인간을 존중될 때, 그곳에 비로소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시되는 곳, 특히 가진 자들에 의하여 인간이 억압되고 유린된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김수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2-8, 414.

41) 김수환, 「빛은 어디에?」, 4-1, 25.

42) 김수환,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5-2, 116.

43) 김수환, 「죽음의 문화」, 4-1, 50.

44) 김수환, 「간호와 그리스도의 사랑」, 6-11, 576.

45) 김수환, 「화해와 평화의 전달자」, 16-3, 165.

분노는커녕 동조한다.⁴⁶⁾ 인명경시, 인간 경시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없다.⁴⁷⁾

2.2. 도덕불감증 분석

2.2.1. 가치 전도 또는 상실의 시대

김수환 추기경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통찰은 인간의 존엄마저 사회적 구성물로 환원하려는 현대사회의 이면을 드러낸다.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인간은 생산적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가치가 매겨져 인간 존엄성조차 만들어진 가치에 불과한 것처럼 간주한다. 이것은 물질중심의 세상에서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의 인간 존엄성을 구성하거나 결정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는 마치 어떤 인식이 다른 인식을 부르고 그 인식은 또 다른 인식을 부르는 등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한 세계를 발생시키는 것처럼,⁴⁸⁾ 우리 사회는 물질을 우선시하는 물질만능, 황금만능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질 자체에 있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가치(힘)를 부여하는 특별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물질 만능중심의 체제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역전되어 가치전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의 인격처럼 등장하고 숭배된 반면, 노동자는 재화를 생산을 위한 도구로 취급되고,⁴⁹⁾ 사회적 약자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고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물질 만능의 사고와 태도는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영역으로까지 확산된다.

그러한 세상에서 생산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그 존엄성마저 부정된다. 그리고 이를 어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사회적 약자의 인권유린에도 점점 둔감해지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고에는 천부적 인간의 존엄성이나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그래서 급기야 “그런 약자가 될 위험이 있으리라 보이는 존재는 진작부터 제거해 버리

46) 김수환,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5-2, 116.

47) 김수환, 「보시니 참 좋았다」, 13-4, 299.

48) 참조: 고봉진, 「약자의 구성주의」, 『법학연구』 32(2021.3), 37-38.

49) 참조: 김항섭, 「물질 만능 시대와 가톨릭 사회교리」 175(2011, 12), 7-13.

치는 관념, 아니 주장이 ...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사실상 이런 주장이 현실화되고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⁵⁰⁾ 그래서 “우리 시대는 흔히 가치 전도 또는 상실의 시대”라는 것이다.⁵¹⁾

2.2.2. 윤리적 상대주의

이 같은 가치 전도 또는 상실의 현상은 “많은 이들이 자유를 마치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구의 제약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즉 어떤 윤리적, 도덕적 제약도 받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⁵²⁾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주체는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곧 상대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비해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의적인 기준이라 할지라도 힘의 논리 안에서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윤리적 상대주의는 강자와 약자의 구도 안에서 작동한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러한 사고가 더 심각하게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번져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지식인들이 윤리의 보편적 기준을 상대화시킬 뿐 아니라 그 기준 자체에 대한 모호한 인식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상대주의는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윤리규범을 아주 부인하거나 시대의 변화나 환경에 따라서 쉽게 윤리 도덕의 규범도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⁵³⁾ 김수환 추기경은 이 흐름에 맞서 교황 바오로 2세가 발표한 회칙 <진리의 광채>의 내용을 참조하여 “윤리 도덕에는 보편적이지요, 변함없는 규범이 있고 따라서 자유는 결코 각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진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가 있다”고⁵⁴⁾ 강조한다. 즉 진정한 자유의 실현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아닌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규범 즉 자연법에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50) 김수환,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5-2, 115.

51) 김수환, 「진리정의 사랑의 가치관」, 1-2, 131.

52) 김수환, 「자유에 대한 오해」, 5-1, 27.

53) Ibid.

54) Ibid.; 인용된 내용은 「진리의 광채」 96항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John Paul II, *Veritas and Splendor* (1993.8.6.), https://www.vatican.va/content/john-paul-ii/en/encyclicals/documents/hf_jp-ii_enc_06081993_veritatis-splendor.html (2023. 10.10)

3. 자연법에 근거한 생명존중

3.1. 자연법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일까? 김수환 추기경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고,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과 그 사회를 이끄는 기초가 된다고 본다. 가치는 스스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 그러므로 가치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 그 근거로서 자연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의하면, “자연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며, 각자의 이성으로 확증된다. 자연법은 그 규정들에서 보편적이며, 그 권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자연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들의 기초가 된다.”(1956항). 또한 “자연법은 인간 공동체들을 건설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도덕적 기초가 된다. 결국, 자연법은 국법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법의 필수적 토대가 된다.”(1959항).⁵⁵⁾

같은 맥락에서 김수환 추기경도 자연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 곧 하느님이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으로 주신 것”으로⁵⁶⁾ “윤리적 행위는 하느님의 창조법칙에 따라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의 자연 본성에 합당한 행위와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는 것”이다.⁵⁷⁾ 그래서 인간은 마음 속 깊이에서 언제나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피하는 “양심의 소리, 도덕률을 따라서 살 때,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⁵⁸⁾ 양심의 소리, 도덕률로서 표현된 자연법은 “인간 본연의 도리, 인간이 보다 인간다움게 살기 위해서 따라야 할 길”을 말한다.⁵⁹⁾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선 확실한 것은 인간 생명은 선하다는 것이다.⁶⁰⁾ 우리말로 ‘선하다’는 말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연상하지만, 영어로 선은 ‘good’ 좋음을 뜻하고 생명에 대한 좋음의 의미는

55)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부 1편, <https://cbck.or.kr/Documents/Catechism> (2023.1.27.)

56) 김수환, 「너 어디 있느냐」, 5-2, 87.

57) 진교훈, 「철학에서 본 자연법과 생명윤리」, 『제6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학술대회-자연법과 생명윤리』, (서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0), 69; 참조: Summa Theologiae, I-II, a.2.

58) 김수환, 「행복의 지름길」, 4-2, 116.

59) 김수환, 「너 어디 있느냐」, 5-2, 87.

60)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교훈에서 제1원칙으로 생명 그 자체가 선이라고 말한다. 진교훈, 같은 글, 70.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남자와 여자, 이담과 화해를 만드신 후에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무려 일곱 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 그만큼 하느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데는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에서 정성을 다하여 지으셨기 때문입니다.”⁶¹⁾ 그러나 동물과 식물 심지어 하늘의 별과 달을 지으시고 좋다고 했으니 그것도 선이 아닌지,⁶²⁾ 그리고 인간 생명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에 의하면, 인간 생명의 존엄은 “우리 각자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모습과 그 반영”에 있다. 이는 인간 생명은 그 자체가 천부적 존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존엄의 근거인 ‘하느님의 모양’은 모든 인간에게 현존한다. 이것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이유”이다.⁶³⁾ 이 전제 위에 민주주의의 원리인 자유, 평등, 박애가 있다. 역으로 존엄성을 부인하면 자유도, 평등도, 박애도 부정되어 모든 인권이 부인되고 민주주의는 역행한다는 것이다.⁶⁴⁾ 그러므로 인간 생명을 위협하고 살해하는 행위는 인간본성의 질서인 자연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다.⁶⁵⁾

3.2. 자유

사실 “그리스도적 생명관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 사상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언제나 존엄하다는 의미이다.”⁶⁶⁾ 김수환 추기경에게

61) 김수환, 「보시니 참 좋았다」, 13-4, 300.

62)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자연생태계 또한 보호의 대상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139항에서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는 환경위기를 일으키며 이는 사회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위한 전략에는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 회복과 동시에 자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경시는 인간이 특히 소수의 강자들이 이기적 탐욕을 채우려 자연 생태계를 조작하고 파괴시키는 형태(생태 불평등)와 동시에 타자와 함께 사는 세상을 해치고 그로 인해 인간 존엄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불평등의 사회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 정민걸, 「함께 하는 사회의 구현: 4대강사업의 이기적 탐욕과 생명 경시 극복」, 『생명연구』 45(2017. 8), 53-96.

63) 김수환, 「인권과 교회의 역할」, 4-1, 6.

64) 김수환, 「빛은 어디에?」, 4-1, 28.

65) 진교훈, 앞의 글, 70.

66) 이동익, 앞의 글, 58.

인간의 존엄성은 윤리적 행위 주체인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양심에 비추어 반성할 줄 알고,⁶⁷⁾ 자신의 자유의사로 옳은 것을 찾아갈 때 인간다워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있어서 진실을 추구하고 인격 완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유는 자연법에 의한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기본 권리이다.⁶⁸⁾

자유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우리가 항상 참된 의미로 선을 선택해야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악을 선택하면 인간은 그 악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고 맙니다. ... 자유는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느님의 그 사랑에 인간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사랑 속에 결합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것, 진리, 정의를 사랑하면서 완성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⁶⁹⁾

우리에게 자유가 부여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는 자유와 선 그리고 사랑은 깊은 상관성을 가지며 인간의 완성을 향한다. 먼저 자유는 선을 선택해야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인간에게 앎이란 바로 이 선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앎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웃을 의식”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서로 동참하려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또 이러한 사랑으로 향한 것이라야 비로소 그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⁷⁰⁾ 곧 자유와 선 그리고 사랑은 서로 상관관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인격의 완성은 이 사랑 바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⁷¹⁾

3.3. 생명존중과 인간다움의 윤리

3.3.1. 생명존중의 실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은 항상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전제한다. 그렇

67) 김수환, 「인간은 인간다워질 때」, 17-8, 341.

68) 김수환, 「평화와 통일은 기본권 회복에서」, 5-4, 210.

69) 김수환, 「빛은 어디에?」, 4-1, 30.

70) 김수환, 「앎과 사랑」, 4-1, 16.

71) Ibid., 17.

지 않으면 그에 존엄을 보호할 수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낙태 문제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낙태는 인권유린의 문제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간화 현상으로서 “낙태문제는 교회의 보수성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의 문제」이다.”⁷²⁾ 그의 생명존중의 실천적 방안은 자연법을 거슬리지 않는 윤리적 방법을 간구한다. 물론 이는 가톨릭교회의 방침이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을 금수와 동등시하여 순전히 유헌론적인 방안으로 신법과 자연법에 위반하기 때문이다.⁷³⁾

그는 여러 상황에서 행해지는 낙태에 대한 대안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가운데 제시하는 데,⁷⁴⁾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은 부모들부터 가져야 하며, 태중의 자식에 대한 존중을 특히 강조한다. 더불어 인구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윤리와 도덕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⁵⁾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자연주기법”이다.⁷⁶⁾ 1968년에 발표된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 16항에서 “출산 기능에 내재된 자연적 주기를 고려하여 … 도덕 원칙들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출산을 조절하는 것은 정당”(16항)하며, 이는 “부부사랑을 더욱 높은 인간적 가치로 충만하게”(21항) 한다. 이에 상응해 김수환 추기경은 “자연법. 주기법을 이용해 부부가 인내와 자제, 극기, 사랑과 협조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부부 사이의 사랑이 승화되고 더욱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생각이며 행위이고 인간은 인간다운 생각을 함으로써 인간이 된다고” 강조한다.⁷⁷⁾

72) 김수환, 「누구도 모두의 기대를 깨뜨릴 수 없다」, 15-2, 190.

73) 주교단의 공동교서, 「인구문제와 산아제한」(1961.9.26.),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52-57.

74) 김수환, 「낙태는 살인행위」, 15-1, 14-16.

75) 김수환, 「인간 우위의 가치관」, 4-1, 11.

76)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자기주기법과 나프로임신법』,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9), 13-15. 자연주기법 가운데, 오늘날 널리 권장되는 것은 빌링스법(또는 점액 관찰법)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점액을 관찰하여 자신의 생명출산능력의 주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부는 자신들의 자유의지 안에서 자기절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자신들의 생명출산능력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부부의 참사랑 안에서 신뢰와 대화를 기반으로 하여 부부의 관계 증진에 실질적으로 일조한다. 또한 여성의 자기 몸의 변화와 정서적 반응을 자각하는 것이 용이하여 건강 증진과 균형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이다. 이 방법은 난임치료법에도 사용된다.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으로 자연적(natural), 가임력(procreative),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이 난임치료법은 여성이 가진 교유의 가임력을 극대화시켜 자연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 임신센터(<https://www.cmsungmo.or.kr/page/departement/C/344/1>)에서 본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77) 김수환, 「화해와 평화의 전달자」, 16-3, 167.

김수환 추기경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빨리빨리 문화는 결혼과 이혼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낙태와 영아 유기, 청소년 문제 등으로 이어져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할 사명을 지닌 부부의 사랑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⁷⁸⁾ 이는 부부가 단순히 출산의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인간 생명의 기원의 의미와 부부사랑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생각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2부 1장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47-52항)과 1968년에 발표된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 등에 바탕을 둔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세계는 물질주의적인 철학에 의해 좌우되고, 모든 것을 안이한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의 원인을 가치 전도뿐 아니라 가치 상실의 정신적 빈곤에서 온다고 보고, 이는 우리에게 자기 격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사실 그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생명이라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에 언론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생명의 존엄성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주변적인 문제만 거론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상황은 과학기술이 제시하는 청사진에 현혹이 되어 생명의 도구화를 더 당연히 여기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낙태뿐 아니라 인간 생명에 대한 조작도 현실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김수환 추기경은 “인간 생명 조작에의 유혹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유혹, 즉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욕망”이라고 규정한다.⁷⁹⁾ 반면 우리는 여전히 생명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2차 대전 당시 일본이나 독일의 생체실험은 비윤리적이라고 느끼면서 인간 생명 조작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낙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거나 괜찮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제 낙태를 하나의 권리로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 김수환 추기경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생명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한다고 강조한다.⁸⁰⁾ 그 이유는 인간성의 회복 즉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참된 인간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벗고 이웃과 함께하는 이타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⁸¹⁾으로서 그는 이웃사랑을 공동체 의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78) 김수환,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사랑의 문제」, 7-10, 517.

79) 김수환, 「정권에 고언(苦言)뎌 밤새 고뇌」, 16-2, 114.

80) 김수환, 「생명을 택하여라」, 16-2, 124.

웃 사랑은 정치인, 경제인들처럼 국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로서 한 사회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회로 발전하느냐의 여부는 그 나라의 사회 지도층, 특히 정치와 경제인들이 얼마나 인간애(이웃사랑)를 깊이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⁸²⁾

3.3.2. 이웃사랑의 실천적 의미

김수환 추기경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인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다운 인간이다. “인간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다워지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이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금수만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다. 행복도 없다.”⁸³⁾ 돈, 명예, 지위, 지식 등의 대소(大小)를 기준으로 인간다움을 말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무관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 모든 이를 사랑할 줄 알고,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 버림받은 존재일수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모습이 인간답다는 것이다.⁸⁴⁾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남을 위해 내놓을 줄 아는 자기 비움과 자기증여를 통해 실현된다.

흔히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상실하고 그래서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사람됨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은 소유할수록 나를 잃고, 무아(無我)일 때, 즉 빈마음일 때 인간은 진정 인간다워지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무아의 경지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그는 이 무아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웃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빈마음이란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고, 이러한 타자를 향한 마음과 태도에서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간다움은 일방적이지 않다. 관계 안에서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배려하는 상호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배려하는 사람과 이를 받는(취득하는) 자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은 상호

81) 김수환, 「이웃과 함께 하는 이타적 인간」, 16-5, 477.

82) 김수환,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회」, 13-7, 494.

83) 김수환,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4-9, 504.

84) Ibid., 505-506.

적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친교이다.⁸⁵⁾

한편 물질이 우선하는 이 시대에 그의 말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에게 편의와 유용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에 오히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상대적인 강자와 약자라는 구조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다. 돈과 권력의 우상화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힘의 지배에서 우리 또한 예속되어 있다. 이 힘의 지배 논리 안에서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을, 오늘의 세계도 우리 사회도 무시”하고⁸⁶⁾ “인간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경제 성장과 국력 배양이 실은 인간의 희생 위에, 그것도 죄 없고 힘없는 태아를 비롯한 약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고 … 강대국들이 약소국가의 국민들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⁸⁷⁾ 이러한 불의는 다시 한 나라 안에서 빈부의 격차, 노동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세계적으로는 남북의 격차의 심화와 동서 대결의 첨예화를 가속화시켜 인류 사회 전체가 자멸하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인간애가 메마른 나머지 가치관이 혼돈되고 멀어져”⁸⁸⁾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사회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⁸⁹⁾ 이런 차원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가난하고 약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 함께 머무름, 온정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히 당연해 보인다. 이것이 인

85) 친교(communio)는 언어학적으로 공동체와 긴밀하다. Mun은 주변을 도시성벽(moenia)으로 구축하는 것(to munio)을 의미한다. 그래서 communio는 사람들이 공동의 성벽 안에 거처하며 공동의 삶을 이루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ommunio는 라틴어 munus가 의미하는 공동의 과제, 성취, 행정 등을 함께 이루는 것으로 서로에게 만족, 선물, 은총의 뜻도 또한 포함한다. 그래서 친교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상호 의존적이라는 기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활동(a common activity)을 수행한다. 만일 인간이 상호 의존성을 거부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공동의 활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다. 또한 자유에 앞서 공동 활동의 성취가 강조할 때 친교의 의미도 퇴색된다. 두 가지 언어학적인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communio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의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 H. U. von Balthasar, “Communio - A Program”, translated by W. J. O’Hara, Communio International Catholic Review, 33(2006.9), 155.

86) 김수환, 「평화의 왕」, 1-5, 476.

87) Ibid.

88) 김수환 추기경, 「죽음의 문화」, 4-1, 49.

89) 조정환,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 이해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 『인간연구』 35(2018.01), 51.

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인간다운 삶은 강요와 압박에 못이긴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인간 상호성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보다 자유를 통해 진리와 정의,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⁹⁰⁾ 그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진리와 정의 및 사랑을 실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⁹¹⁾ 역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3.3. 참 생명운동

반복된 내용이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진단한 우리 사회는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결핍된 사회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관, 국가관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⁹²⁾ 이 관점은 그가 1970년대 군사정권시절의 인권탄압과 억압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이것이 과거의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린다.⁹³⁾ 태아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종속시켜 임부의 결정에 따라 죽여도 된다고 판결한다. 비록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서 국가의 보호의무를 언급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재확인”했지만,⁹⁴⁾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죄 조각 사유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을 해석해보면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태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임부의 결정에 따라 상대화된다. 마치 임부에게 태아의 존엄성을 생성시킬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태아의 존엄성은 마치 화폐의 가치처럼 임부의 태도나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⁹⁵⁾ 이 판결은 인간의 존엄성을 천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듯 보인다. 그보다는 하나의 사회구성물로서 인간존

90) 그는 이를 정치적으로 민주화라고 표현한다. 김수환,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15-3, 412.

91) 김수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구현」, 5-5, 335.

92) Ibid.

93) 헌법재판소,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2023.2.15.)

94) 엄주희, 『헌법과 생명』, 박영사, (서울: (주)박영사, 2021), 105.

95) 참조: 설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구성주의-실용주의적 모델과 도덕주의-제도주의적 모델 비판」, 『철학연구』, 125(2019.6), 247.

엄성을 바라보는 구성주의 사조가 한 몫을 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부정하는 추세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수환 추기경에 의하면, “생명의 권리는 인간의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⁹⁶⁾, 생명의 존엄, 생명에 대한 존경은 오늘날 온 세계에서 감행되고 있는 낙태로부터 즉 가장 연약한 생명의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⁹⁷⁾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그가 강조하는 이웃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웃 사랑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시작되기에, 생명의 존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생명운동은 근본적으로 태아의 어린 생명을 지키는 낙태 방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생명의 시작이요, 기초인 태아의 생명, 그 생존권을 무시하고는 참 생명운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⁹⁸⁾

또한 법은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법은 인간의 도덕과 이성, 그리고 정의에 합치될 때에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⁹⁹⁾이다. 그래서 “권력의 행사는 자연법과 인간 본성에 일치되는 ‘도덕적 함’일 때만 정당한 것”이다.¹⁰⁰⁾ 공권력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양심에 바탕을 둔 도덕적 함”으로,¹⁰¹⁾ “모든 성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더 공평하고, 한층 더 인간다운 생활 향상이 공동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성원의 기본 인권이 바로 공권력 자체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¹⁰²⁾ 즉 모든 성원-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이 존중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 존엄은 상대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기본 인권 또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권유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태아를 비롯한 약자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이 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간 존중과 윤리의 바탕이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96) 김수환, 「생명운동」, 4-1, 57.

97) 김수환, 「나의 길, 나의 생명」, 9-2, 132.

98) 김수환, 「생명운동」, 4-1, 57.

99) 김수환, 「가슴피고 살도록 해주어야」, 15-3, 488.

100) 김수환, 「국민을 위한 정치」, 5-5, 348.

101) 김수환, 「교회가 현실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5-5, 289.

102) Ibid, 290.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은 “생명의 존중과 인간의 존중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¹⁰³⁾라는 의식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¹⁰⁴⁾ 우리사회에 실현하는 데 있어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요청이다. 그리고 이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사회가 직면한 물질·황금만능주의 시대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약자라고 해서 생명을 짓밟아도 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으며, 한 사회가 문명의 사회로 발전하려고 이런 약자를 죄인으로 죽여야 되고 “영리하고 힘센 자만 살아야한다면 결국 양육강식의 이기주의적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⁰⁵⁾

둘째, 그는 우리사회의 생명경시의 현상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자연법에 근거하는데, 엄격한 윤리적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왜 자연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길은 “생명을 선택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것이요, 생명을 경시하는 반생명적, 반인간화 풍조를 피하는 것” 즉 자연법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경시 “문제의 근본적인 실마리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 회복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가 정치도 해나가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교육도 시키고 언론도 모두 이를 향해 떠나간다면 이것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¹⁰⁶⁾

셋째,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 생명의 존중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특정한 능력이나 기능, 사회적 지위나 인종, 학벌이나 계급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존엄하다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

103) 김수환, 「법학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생명존중의 법적 과제' 기초강연: 생명의 존엄성」, 『법학연구』 2/1(2003.12), 6.

104) 사목헌장 27조 “공의회는 실제적이며 긴급한 결론으로 인간에 대한 존경을 강조한다.” 김수환, 「가톨릭의 세계적 전망」, 4-1, 37.

105) 김수환, 「밝은 사회와 크리스찬」, 6-7, 340.

106) 김수환, 「인간성의 회복」, 4-1, 53.

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기에 그에게 인간의 존엄은 바로 인간 생명의 존엄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은 바로 인간 생명 존중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낙태문제는 교회의 보수성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의 문제이면서 인권의 문제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 존중과 이웃사랑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으며 이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자 균형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해서 부여된 천부적 권리로써, 이웃 사랑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간관 정립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인격체의 윤리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인격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낙태와 안락사, 배아연구, 인간 복제 등 윤리도덕과 자연법에 위배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의사의 조력을 받은 자살을 통해 인간이 존엄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⁷⁾ 입법자들도 인간의 존엄이 하나의 결과물로 생취된다고 주장하는 현실이다. 또한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더불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가치의 전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지적했듯이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생명이라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에 개인도, 사회도 언론도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생명의 존엄성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주변적인 문제만 거론하고 있다. 그는 “생명문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느 사안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면 2천년 대화년 얘기를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¹⁰⁸⁾ 인간이 그의 생명에 무지할 때, 비인간화되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에서 파악한 또 다른 사실은 그가 우리 시대의 징표를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읽었다는 것이다.¹⁰⁹⁾ 또한 그의 생명존중사상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 그리고 윤리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

107) 2022.6.15.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을 대표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간이 존엄하기에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문제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6(2020.9), 1-36.

108) 김수환, 「대화년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16-5, 487.

109)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대의 징표를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청한다(김향섭, 앞의 글, 24-25). 김수환 추기경은 이를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도구화하는 사태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의 냉철한 통찰과 비판은 “인간 생명의 가치는 그 부수적인 자질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것이 인간 생명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달려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강조”하는¹¹⁰⁾ 가톨릭 생명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그의 생명존중사상이 독창적이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의 생명존중사상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 그리고 인간다움의 윤리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통합·정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한국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권운동을 통해 실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권운동의 바탕은 다름 아닌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다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에게 생명의 의미와 존중의 삶의 방향과 이상을 안내”하는¹¹¹⁾ 윤리와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성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더 공평하고, 한층 더 인간다운 생활 향상시키는 인권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더 물질의 가치가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수호는 인권수호이자 인간성 회복의 운동이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운동이다. 그의 말처럼 생명의 기본권은 비인간화되어가는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올바른 인간의 가치관을 쇄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즉 사회 변화를 위한 근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하나의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은 가톨릭 생명윤리에 기초하기에 가톨릭교회의 생명존중사상 안에서 그의 생명존중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생명존중사상의 거시적 관점에서 그의 생명존중사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통해 그의 생명존중사상의 특징을 비교 검토하여, 그의 사상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후속작업으로 남긴다.

110) 이동익, 「‘삶의 질’과 ‘생명의 신성함’ 생명윤리」, 『인간연구』 13(2007.7), 57.

111) “생명윤리는 인간에게 생명의 의미와 존중의 삶의 방향과 이상을 안내하는 것 … 결국 생명윤리는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한다.” 홍석영, 「생명 존중 교육이 시급하다」, 『선비문화』, 15(2009, 3), 73.

참고문헌

가. 1차 자료

- 김수환 추기경 전집 편찬위원회, 『김수환추기경전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1). 이하 제목(행사, 날짜), 권수-파트, 수(시작 페이지) 형식으로 정리함
- 「가슴 펴고 말 좀하고 살도록 해주어야」 (《동아일보》, 1986.12.24.), 15-3, 476.
- 「가톨릭의 세계적 전망」 (신앙대학 강좌, 1980.3), 4-1, 32.
- 「간호와 리스도의 사랑」 (전국간호사협회 15주년 기념미사, 1994.5.28.), 6-11, 576.
- 「격동의 바티칸 78년」 (《주간한국》 인터뷰, 1978.12.17.), 15-1, 164.
- 「교회가 현실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 (서울YMCA 강당, 1973.12.16.), 5-5, 286.
- 「국가 공권력과 국민과의 관계」 (「지상의 평화」 10주년기념, 1973.3.24.), 13-1, 13.
- 「국민을 위한 정치」 (인권회복 미사, 1986.12.8.), 5-5, 345.
- 「나의 길, 나의 생명」 (“타종교와의 문제” 외국 방문중 미사, 1991.4), 9-2, 132.
- 「낙태는 살인행위」 (《가톨릭서울》 인터뷰, 1970.7.20.), 15-1, 13.
- 「너 어디 있느냐?」 (인천청소년 신앙대회, 1982, 6.11), 5-2, 76.
- 「누구도 모두의 기대를 깨뜨릴 수 없다」 (《한국일보》, 1980.1.6.), 15-2, 187.
- 「대회년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16-5, 485.
- 「밝은 사회와 크리스찬」 (《주간종교》, 1974.3.27.), 6-7, 339.
- 「보시니 참 좋았다」 (참생명학교 파견미사, 1994.5.27.), 13-4, 299.
- 「빛은 어디에?」 (특강, 1980), 4-1, 23.
-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메모, 1982.12), 4-9, 503.
- 「생명 우리의 평화」 (『사목』 129호, 1989.10), 15-4, 630.
- 「생명운동」 (낙태방지 심포지움 격려사, 1991.4.30), 4-1, 56.
- 「생명을 선택하라」 (《가톨릭신문》 창간66주년 기념특별대담, 1994.4.24.), 16-2, 119.
-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신도회의, 1992.8.24.), 4-1, 59.
- 「생명의 빛 메시아」 (성탄절 메시지, 1976.12.25.), 1-5, 444.
- 「앓과 사랑」 (서강대 개강미사, 1978.9.30.), 4-1, 16.
-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회」 (국제 엠네스티 강좌, 1979.7.26.), 13-7, 489.
-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목요특강, 국민대학교, 1995.9.14.), 5-2, 109.

-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종로·성북지구 성체대회, 1987.9.13.), 2-8, 410.
- 「인간성의 회복」 (《동아일보》, 1983.9.16.), 4-1, 52.
-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묵상, 1971), 17-8, 341.
- 「인권과 회의 역할」 (복음화 연구를 위한 메시지, 1974.10.22.), 4-1, 5.
- 「인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광복절 특별메시지, 1988.8.15.), 9-5, 323.
- 「이웃과 함께 하는 이타적 인간」 (《조선일보》 인터뷰, 16-5, 474.
-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사랑의 문제」 (전국 ME 부부의 날, 1996.5.24.), 7-10, 515.
- 「자유에 대한 오해」 (교황 피선 15주년 미사, 1993.10.17), 5-1, 26.
- 「절망 속에 계시는 하느님」 (사순절 메시지, 1992.3.8.), 1-3, 232.
- 「정권에 고언(苦言)뎌 밤새 고뇌」 (《한국일보》 인터뷰, 1993.4.20.), 16-2, 110.
-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구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1985.8.15.), 5-5, 333.
- 「종교와 인생」 (육군사관학교 강연, 1999.1.15.), 4-2, 153.
- 「죽음의 문화」 (《동아일보》, 1983.9.16.), 4-1, 49.
- 「진리·정의·사랑의 가치관」 (새해 미사, 1975.1.1.), 1-2, 125.
- 「집단적 양심 진단」 (『사목』 16호, 1971.2), 493.
- 「탈(脫)생명의 시대」 (묵상, 1975), 4-1, 8.
- 「평화와 통일은 기본권 회복에서」 (《가톨릭시보》, 1979.3.1), 5-4, 207.
- 「평화의 왕」 (성탄절 메시지, 1983.12.25.), 1-5, 475.
-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 (아현동성당 축성식, 1991.5.5.), 2-6, 327.
- 「행복의 지름길」 (성심여대 졸업식, 1982.2.23.), 4-2, 115.
- 「화해와 평화의 전달자」 (《평화신문》 뉴욕지사 인터뷰, 1994.7.21.), 16-3, 162.
- 「희생 동반한 나눔」 (《가톨릭신문》, 1995.8.13.), 12-6, 457.
- 김수환, 「법학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생명존중의 법적 과제' 기조강연: 생명의 존엄성」, 『법학연구』 2/1(2003,12), 5-12.

나. 2차 자료

① 교회 문헌

『가톨릭교회 교리서 개정판』,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옮김(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https://cbck.or.kr/Documents/Catechism> (2023.1.27).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공유산에 관한 선언문」 (1974.11.18), <https://cbck.or.kr/Documents/Curia/20220709?gb=title&search=%EC%9D%B8%EA%B3%B5%EC%9C%A0%EC%82%B0> (2023.1.13.).

John Paul II, *Veritas and Splendor*(1993.8.6), https://www.vatican.va/content/john-paul-ii/en/en-cyclicals/documents/hf_jp-ii_enc_06081993_veritatis-splendor.html(2022.10.1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생명의 복음」 (1995.3.25.),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2015.5.2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② 기타 문헌

교봉진, 「약자의 구성주의」, 『법학연구』 32(2021.3), 36-58.

김향섭, 「물질 만능 시대와 가톨릭 사회교리」 175(2011, 12), 2-29.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6(2020.9), 1-36.

설 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구성주의-실용주의적 모델과 도덕주의-제도주의적 모델 비판」, 『철학연구』, 125(2019.6), 227-258.

엄주희, 『헌법과 생명』, 박영사, (서울: (주)박영사, 2021).

이동익, 「‘삶의 질’과 ‘생명의 신성함’ 생명윤리」, 『인간연구』 13(2007.7), 44-64.

정민걸, 「함께 하는 사회의 구현: 4대강사업의 이기적 탐욕과 생명 경시 극복」, 『생명연구』 45(2017. 8), 53-96.

조정환,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 이해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 『인간연구』 35(2018,01), 39-67.

진교훈, 「철학에서 본 자연법과 생명윤리」, 『제6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학술대회-자연법과 생명윤리』, (서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0), 61-75.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자기주기법과 나프로임신법』,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9).

헌법재판소,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2023.2.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주교회의 대(對)사회 문헌(1948-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홍석영, 「생명 존중 교육이 시급하다」, 『선비문화』, 15(2009, 3), 72-77.

Vatican News, “Pope: Abortion is murder, the Church must be close and compassionate, not political”, 2021.9.16., <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21-09/pope-abortion-is-murder-the-church-must-be-compassionate.html> (2023.1.13.)

Balthasar, H. U. von, “Communio - A Program”, translated by W. J. O’Hara, *Communio International Catholic Review*, 33(2006.9), 153-169.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존중사상 연구: 낙태 사례를 중심으로

최진일

김수환 추기경은 윤리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존재 방식이며, 윤리의 바탕은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사회의 인권운동과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윤리관이 우리사회문제에 대한 통찰과 인권운동에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그의 관점도 인권수호와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가정아래, 낙태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생명존중사상을 고찰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의 생명존중사상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읽으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 그리고 윤리를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통합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의 생명존중사상의 특징은 첫째, 태아를 인간이자 약자로서 바라보고, 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태아에 대한 돌봄과 관심을 요청한다. 둘째, 생명존중을 위한 실천적 규범은 자연법에 근거한다. 그는 자연법을 인간이 인갑답게 사는 길로서 제시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셋째, 그에게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낙태문제는 교회의 보수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의 문제이면서 인권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존중과 이웃사랑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으며 이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자 균형은 바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다.

주제어: 김수환 추기경, 생명존중, 인간존엄, 낙태, 생명윤리

A Study on Cardinal Kim Sou-Hwan's Respect for Life: Focusing on the Case of Abortion

Choi, Jinil

Cardinal Kim Sou-Hwan emphasizes that ethics is the way humans can be human beings, and that the basis of ethics lies in respect for human life at all levels. As is well known, he was a person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human rights movement and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dicts that his ethics based on respect for life would have been the basis for insight into our social problems and human rights movements. I presuppose that his perspective on abortion is also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examine his thought of respect for life, focusing on the case of abortion. Through this study, we will discover that Cardinal Kim Sou-Hwan's thought of respect for life comprehensively reads the reality of our society and then integrates human dignity, respect for life, and ethics from an ontological point of view.

The characteristics of his respect for life are, first, to look at the fetus as a human person and the weak, and to ask for care and attention for the fetus as one of the weak. Second, practical norms for respecting life are based on the natural law. He presents the natural law as the way for humans to live as humans and explains why we choose life. Third, for him, respect for human dignity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respect for human life. Therefore, the abortion issue is not a matter of conservatism of the church, but a matter of ethics and human rights. Finally, respect for human beings and love of neighbors are like both wheels of a cart, and the axis and balance that connect these wheels lies in respect for human life.

Key Words: Cardinal Kim Sou-Hwan, Respect for Life, Human dignity, Abortion, Bioethics

논문 투고일	2023년 3월 5일
논문 수정일	2023년 4월 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7일
